

다윗 이야기

⑧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되었어요.

나 레 이 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왕과 함께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사울왕을 떠나고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을 택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너무도 마음에 드셔서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던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리지요.

다 윷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너에게 간다. 받아랏!

나 레 이 셴 다윗이 던지 돌에 맞은 골리앗은 바로 땅에 쓰러집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를듯 하였습니다.

백 성 들 사울왕도 대단하지만 요즘은 다윗 장군님이 더 대단해! 하하! 다윗 장군님 만세!

나 레 이 셴 하지만 그러한 명성으로 인해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였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위협을 느낀 다윗은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을 막아보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기에 슬피 울며 다윗을 도망시키기로 합니다. 둘은 헤어지면서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언약을 한 후 부둥켜안고 눈물을 머금고 헤어집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번번이 도망쳤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어낼 뿐 결코 그를 죽이지 않는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 레 이 셴 하나님께 선택 받아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은 줄곧 기쁨과 행복의 연속일 줄 알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의 삶은 계속되는 도망과 외로움과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고통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다윗에게 몰려왔고 다윗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 레 이 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였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시기에 다윗은 평생을 그와 함께할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닌 지 어언 10여년이 지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외국에 도망가 이민자와 용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고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전쟁 후 나라와 백성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왕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은 외국에 있던 다윗을 찾아가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됩니다. 기름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 받았던 다윗은, 왕은커녕 거지같이 가난하고 고통스런 삶만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해 가셨습니다. 어린 다윗은 고난의 시기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